내 비트코인은 어디에 존재하는가

이름 : 이영재

학번 : 20191914  
 반 : 01

|  |
| --- |
| **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.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개키(개인키와 세트인)와 연결된 잔액을 알 수 있고, 코인을 트렌잭션 할 때 이 잔액에 엑세스할 수 있다.**  암호화폐 지갑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이다. 지갑을 만들면 개인키와 공개키라는 두 키를 받게 된다. 개인키는 ‘계좌의 비밀번호’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개키는’ 계좌번호’라고 생각 할 수 있다. 이 비밀키는 소유자가 해당 암호화폐를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잠금 해제한다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갑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(코인)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개인키이다. 내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코인에 접근하는 개인키이다. 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별도의 중앙서버가 없으며,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수십만개의 서버가 존재한다. 이 서버를 노드(node)라고 부른다. 내가 코인을 채굴하거나 코인을 거래하면 모든 노드에 전달이 된다. 이런 정보의 단위가 트렌잭션이다. 그러면 내가 산 코인은 노드에 저장 되어있고 이 정보를 우리는 개인키를 가지고 접근하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. |